

## 고객의 목소리

---

- 박력이 넘칩니다. 건물의 모습이 아름답고 옷의 특유한 냄새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. 어른이 되면 또 오겠습니다.
- 사스노마의 차 제공 서비스에서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질과 호스피탈리티를 느꼈습니다.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.
- 역사적인 건물을 보고, 흥미가 생겼습니다. 다음에는 더 많이 예비조사를 해서 방문하고 싶습니다.
- 모든 스태프가 류큐왕국 시대의 의상이나 그것과 유사한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서 이곳 분위기에 융화되어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. 특히 연세가 있으신 남성분이 검은색 복장과 아주 잘 어울려,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